

무주산골영화제 10주년 다큐멘터리 '무주'

무주 과거·현재·미래 대한 이야기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 영화제 기간 중 최초 공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2022. 6.2.~6.6.)가 10주년을 맞이해 특별 다큐멘터리(무주)를 제작하며 관객들에게 '무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그간 인구 2만 3천명의 산골 소도시 무주군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영화, 영상, 출판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는 소비 중심의 영화축제를 넘어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남기는 생산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도에는 윤재호 감독이 연출한 관객 참여형 단편영화 <순간>이, 2021년도에는 김종관, 장건재 감독이 연출한 <달이 지는 밤>이 공개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달이 지는 밤>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과노라미] 섹션, 제46회 서울독립영화



1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 <무주>

제 [페스티벌 초이스-장편] 섹션에 공식 초청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세 번째 영화 제작 프로젝트인 <무주>는 무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무주라는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올해 10주년을 맞는 무주

산골영화제의 성장을 지켜봐 준 무주군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지난해 무주산골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뉴비전상과 영화평론가상을 동시에 수상한 <셀프-포트레이트2020>의 이동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인터뷰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무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무주>는 이번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 최초로 관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10주년을 맞이해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목)부터 6월 6일(월)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되며, 오는 5월 17일(화)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를 진행 중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주시, '경기전을 지켜라' 프로그램 진행

생생문화재 사업 일환 28일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뒀시다' 첫 번째 행사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김진형 이사장)이 주관하는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뒀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축제 프리뷰 1탄 '경기전을 지켜라'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열린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대표 프로그램인 태조어진 봉안축제(10월 29일)를 포함해 △축제프리뷰 1탄 경기전을 지켜라(5월 28일) △축제프리뷰 2탄 히스토리텔링 국악콘서트 또 하나의 왕 어진(6월 4일) △우리동네 문화유산지킴이 워크숍(9월 24일, 10월 22일) 등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전을 지켜라'는 사전접수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이 경기전 수문군과 함께 경기전 안마당을 순라행렬한 후 태조어진 등 경기전 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역사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전 순라행렬과 문화유산 탐방 후 궁중활쏘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주시고 안마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나도 어진화사', '삼가 아뢰옵나이다', '경기전에 나를 닮다', '왕의 선물 한지를 느끼다' 등 태조어진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만들기나 그리기 체험은 별도의 체험료가 있으며, 현장에서 카드결제 가능하다.



'경기전을 지켜라' 사전접수 및 참가신청 관련 정보는 (사)전통문화마을 누리집과 어진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사)전통문화마을(063-232-1902)로 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전북대, 총상금 800만원 규모 문학상 공모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8월 31일까지 작품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총상금 800만 원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화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로,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 작품은 '전북대신문' 개고기념 특집호에 발표된다.

작품은 전북대신문사 편집국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와 '혼불'의 최명희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총상금 규모가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대

폭 인상됐다.

이번 문학상의 모태는 1955년부터 운영돼 오던 '전북대신문 학생작품 현상모집'이며, 최명희 작가 역시 1971년 소설 '정육이'로 당시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한편, 이 문학상은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문이 되고 있다. 권상혁·김보현·김학찬·손홍규·이갑수·전아리·허태연 소설가, 박성준·백상웅·이혜미·조율 시인 등이 이 문학상 출신이다.

문학상 공모에 관한 문의는 전북대신문방송사(063-270-3536)로 하면 된다. /정문성 기자

'실버마이크 전북권' 5월 정규공연 펼쳐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실버마이크 전북권 (Jella 멋_眞)' 5월 정규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공연 발대식을 갖고, 25일 오후 5시 전주 세병호와 고창(28일 오후 3시, 고창읍성), 군산(29일 오후 3시,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공연을 펼친다. 버스킹 형태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본 공연에서는 악기 연주, 노래, 마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공연을 관람하고 인증 사진을 필수 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인증샷 이벤



실버마이크 전북권 발대식 모습

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063-230-745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립농악단 기획공연 '신명 도깨비들의 고고쟁' 성료

정읍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읍시립농악단의 기획공연 '신명 도깨비들의 고고쟁(古鼓Sing)'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신명 도깨비들의 고고쟁'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정읍시립농악단이 4개월에 걸쳐 직접 제작한 지역맞춤형 기획공연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며 희망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음 시민들에게 어린 시절 느꼈던 농악의 신명을 통해 행복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지역예술인 양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우리 농악과 전통연희 마당을 친숙하면서도 교육적인 전래동화 흑부리 영감과 접목해 흥겨운 놀이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정읍시립농악단원이 주 출연자가 되어 정읍농악의 에너지 화려함을 선보이며, 아이들에게 교육과 더불어 전통적 볼거리와 권선징악의 의미를 전달했다.

특히, 농악과 전통연희에 도입한 LED 의상 효과와 배경의 빠른 전환을 위한 무대 영상을 통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수시로 우수작품을 초청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김태환기자

군산대 음악과 '박규연의 아르모니아 제8회 정기연주회' 공연

'박규연의 아르모니아 제8회 정기연주회'가 26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아르모니아는 군산대 졸업생 및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전문 피아니스트 앙상블 연주단체이고, 2016년에 창단되어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Mary May'를 주제로 한 연주회에서는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랩소디 2번, 폴 뒤카의 마

법사의 제자, 윌리엄 볼콕의 에텐의 정원,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조곡 4번과 8번, 카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등을 선보이게 된다.

아르모니아는 이태리어로 조화, 어울림을 뜻하는 말로 2016년에 창단되었다. 군산대학교 음악과 졸업생 및 대학원생 이상 피아니스트들이 주 구성원으로, 공연에서 연주하는 오유란, 이예담, 김자경, 이주희, 이상희 피아니스트가 정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산=김관용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홍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